

## 유망 중소기업의 Scale-Up을 위한 도약(Jump-Up) 프로그램 추진방안

2024. 8. 7.

관계부처 합동

## 도약(Jump-Up) 프로그램 추진방안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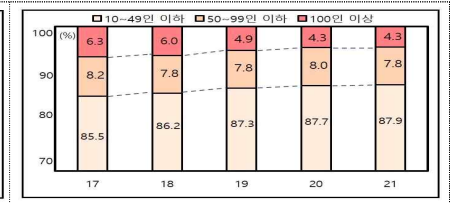
### I 추진 배경

- 최근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스케일업(Scale-Up)을 통해 생산성 높은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한데,
  - 중소 → 중견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는 오히려 약화 추세

< 중견기업 현황 추이 >



< 중소기업 규모별 비중 추이 >



- 성장사다리 복원 및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어려운 대내외 시장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실
  - ⇒ 유망 중소기업이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통해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스케일업(Scale-Up)** 할 수 있도록 **종합적·획기적 지원** 필요

### II 여건 분석

- **[산업]**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성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출해야 하나, 해당 분야에서의 중소기업 비중이 낮아 스케일업에 한계
  - ⇒ 성장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로 중소기업 진출 촉진 필요
- **[기업]** 중소기업의 대다수는 신사업 등 성장동력 확보 및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준비 중인 중소기업은 일부에 불과
  - ⇒ 중소기업이 스케일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리스크 분담** 필요
- **[정책]** 창업기업은 단계·대상별 지원체계가 집중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나, 일반 중소기업 지원은 자금, R&D, 판로 등 분야별로 분절화 경향
  - ⇒ 7년 이후 중소기업의 스케일업도 창업에 준하는 **체계적 지원** 필요

### III 목표 및 전략

<b>목표</b>	<b>민·관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 스케일업 지원으로 미래 신성장 분야의 중견(후보)기업으로 도약</b>
<b>지원 전략</b>	<b>(1) 혁신역량과 성장의지를 갖춘 중소기업 100개 선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I+현장</b> AI 기반의 정량 평가 및 민간역량을 활용한 현장평가</li> <li>▪ <b>심층토론</b> 기업별 발표·토론 방식으로 심층평가</li> </ul>
	<b>(2) 성공적 스케일업 위한 전용 프로그램 신설</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디렉팅</b> 디렉터 &amp; 서포터를 매칭, 소주기 맞춤형 지원</li> <li>▪ <b>바우처</b> 오픈형 바우처를 신설, 스케일업 도전 마중물 제공</li> <li>▪ <b>네트워킹</b>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한 새로운 사업 기회 제공</li> </ul>
	<b>(3) 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범부처 정책 패키지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금융지원</b> 대규모 자금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금융 패키지 지원</li> <li>▪ <b>연계지원</b> 핵심기술 확보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 연계</li> </ul>

### IV 세부 실행방안

#### 전략 1 혁신역량과 성장의지를 갖춘 중소기업 100개 선발

##### 1. 스케일업 가능성이 높은 분야 및 기업군을 전략적으로 타겟팅

- ① **[중점분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공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와 발전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진출·성장 촉진
  - \* 중점분야(예시) : 첨단제조, 에너지, 디지털·통신, AI·스마트, 바이오 등
- ② **[선발대상]** 중견기업으로의 스케일업 의지가 높고, 혁신성, 기술성 등 성장역량·의지를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 (25. 100개사)
  - 모든 업종의 중기업을 선발대상으로 하되, 중기업은 중견후보 기업으로, 중견후보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업

#### 2.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객관적·전문적으로 선발

- ① **[STEP 1 AI + 현장평가]**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 성장성 등을 AI 기업분석과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 ⇨ **객관적 선별(Initial Screening)**
  - (AI 평가) 정책금융기관의 AI 기업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내·외부 실시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잠재 역량분석·평가
  - (현장실사) 민관합동평가단\*을 통해 기술사업성과 스케일업 역량 평가
    - \* (기술전문가) 대학교수, 연구원 등 해당 기술분야 연구자, (성장전문가) AC·VC·CVC (지원기관) 정책금융기관의 심사역(기술 석박사, 기술사 등)
- ② **[STEP 2 심층토론 평가]** 기업의 산업·기술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 후, IR 피칭과 심층 토론을 통해 최종 선정 ⇨ **종합검증(Integrated Valuation)**
  - (평가위원) 기업의 신기술, 성장성, 도전 의지를 검증할 수 있고, 후속 네트워킹 연계도 가능한 민간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
    - \* 대학교수, 공공연 등 기술분야별 전문가, VC·CVC·PE, 대기업 前 임원, 벤처 창업주 등
  - (평가방식) 기업별 성장전략 PT 및 평가위 심층토론 後 전원합의 방식 결정
    - \* (전문코칭) 신청기업의 성장전략 도출 및 PT 발표 준비를 위한 전문가 코칭 지원
    - \*\* (심층토론) 1·2단계 평가결과와 기업의 성장전략을 바탕으로 전원합의 방식으로 선정

#### 전략 2 성공적 스케일업 위한 전용 프로그램 신설

##### 1. 디렉터&서포터를 통한 스케일업 소주기 맞춤형 지원

- ① **[전담디렉터]** 기업인, 민간 투자사 등을 통해 스케일업 전략 총괄·관리
  - (디렉터 구성) VC 등 민간 투자사 추천자, 스케일업 경험을 보유한 벤처 기업인, 前 대기업 임원 등으로 구성
  - (기업매칭) 디렉터가 기업 선정평가 절차에 참여하여 직접 디렉팅 대상기업을 탐색·선택 → 해당기업·디렉터와 협의하여 상호 매칭

## ② [전략서포터] 신사업·신시장 진출 등 비즈니스 모델 체계화·구체화

- (서포터 구성) 글로벌 컨설팅사를 주관기관으로 공모·선정하고, 전략서포팅이 가능한 역량 있는 컨설턴트 POOL 구축
- (기업매칭) 스케일업 비전·전략, 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분야와 역량을 보유한 최적의 컨설턴트 배정

## ③ [기술서포터] 스케일업에 필요한 R&D 기획 및 기술 솔루션 등 지원

- (서포터 구성) 출연연 등 연구기관을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선정하고, 기술서포팅이 가능한 역량 있는 연구원 POOL 구축
- (기업매칭) 기업-디렉터 간 협의를 통해 도출된 기업별 세부 신기술 도입 방향을 고려하여 연구기관에서 적합한 연구원 배정

## 2. 오픈형 바우처를 통해 스케일업 도전의 마중물 제공

### ① [개요] 스케일업 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각종 사업화 비용의 70%를 매년 2.5억원, 최대 3년간 7.5억원의 오픈바우처 발급

\* 지원규모 : (1년차) 2.5억원, (2년차) 2.5억원, (3년차) 2.5억원 ⇨ 3년간 총 7.5억원 지원

\*\* 매년 사업 진척도 등 성과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여부 결정

### ② [활용] 지원금액(바우처)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와 서비스 수행기관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신사업·신시장 진출 등에 활용

\* 네거티브 통제방식을 도입하여 미지원 서비스(인건비, 식비 등) 외 자율 활용

## 3.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한 새로운 사업 기회 제공

### ① [투자유치 네트워크] 투자유치 실적 유무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의 수준·역량별 투자유치 네트워킹 지원

\* (진입트랙) 투자유치 실적 미보유 기업 → 시리즈B(100~300억원) 유치 목표  
(성장트랙) 기관-민간 투자유치 실적 보유 기업 → 시리즈C(500억원 내외) 유치 목표

### ② [해외진출 네트워크] 미래전략 분야별 주요 해외시장을 타겟팅하여 신시장 개척에 필요한 현지 네트워크 활동 집중지원

## 전략 3 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범부처 정책 패키지 지원

### 1. 대규모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 패키지 지원

#### ① [정책자금] 용자 규모 확대 및 용자범위·조건 개편 등\*을 통해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적·안정적으로 공급

- \* ① 용자범위 확대(시설·운전 → M&A·기술이전), 거치기간 및 만기조건 완화, (5년 거치 10년 상환 → 6년 거치 12년 상환), 우량기업 용자제한 조건 완화 등
- ② 정책금융기관(기은산은신보) 등이 신속한 여신심사와 우대금리 제공 (금융위 협업)

#### ② [정책보증] 스케일업 단계별 시중 은행권을 통해 필요 자금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 (최대 200억원 한도, 기보)

#### ③ [민간투자] 민간 자본을 통한 성장을 위해 '스케일업·중견도약 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 포함 및 다양한 정책 펀드와 연계\* 확대

\* 혁신성장펀드, 중견기업 전용펀드 등의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투자 유도 등

#### ④ [채권발행] 중소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여 통해 민간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중진공, 기보)의 P-CBO 연계 지원

### 2. 핵심기술 확보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 집중지원

#### ① [기술개발] 기술서포터를 통한 R&D 탐색 및 기획과 단계별 R&D 지원\*을 통해 스케일업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신속한 확보 지원

\* ① (초기단계) 구조혁신 R&D → ② (상용화·고도화) 수출형 R&D + 스케일업팁스 연계

#### ② [수출금융]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용자·보험·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 (용자) 수출자금 용자한도 확대(실소요자금 등의 90% → 100%), 금리우대(Δ1.0%) (보험) 보험 가입한도 확대(책정 한도의 최대 2배), 보험료 할인(최대 20%) 등 (보증) 보증한도(책정 한도의 최대 2배) 및 보증비를 확대, 보증료 할인(최대 20%) 등

# 순서

- I. 추진 배경 ..... 1
- II. 여건 분석 ..... 2
- III. 목표 및 전략 ..... 4
- IV. 세부 실행방안 ..... 5
  - 1. 혁신역량과 성장의지를 갖춘 중소기업 100개 선발 ..... 5
  - 2. 성공적 스케일업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 신설 ..... 8
  - 3. 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범부처 정책 패키지 지원 ..... 14
- V. 추진일정 ..... 17

## I. 추진 배경

☞ 기업성장사다리 구축 방안(24.6월)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점프업 프로그램' 구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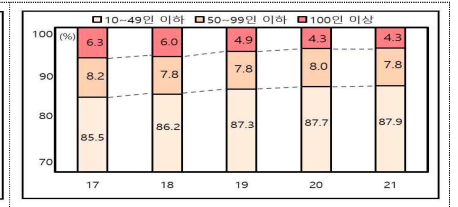
- '80년대 이후 우리 경제성장률이 지속 하락 추세를 보이고, 최근까지 성장률이 정체되면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 제기
  - 특히, 잠재성장률\*이 함께 하락함으로써 경제의 기초체력과 활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우리 경제성장의 주된 제약요인으로 작용
  - \* 잠재성장률(IMF, %): ('05) 4.4 → ('10) 3.8 → ('15) 3.1 → ('20) 2.3 → ('24) 1.7
  -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는 경제 전반의 낮은 생산성에서 비롯되며, 이는 생산성이 낮은 중소기업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것에 기인
  - \* 고용 규모별 노동생산성('22, 백만원): 208(100~299인) > 150(50~99인) > 113(10~49인)
  - \*\* 소기업(10~49인) 고용비중(OECD, %): (한) 41.2 > (영) 19.2 > (독) 13.9 > (프) 12.8

-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스케일업(Scale-Up)을 통해 생산성 높은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필요한데,
  - 중소기업 → 중견 →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는 오히려 약화 추세

< 중견기업 현황 추이 >



< 중소기업 규모별 비중 추이 >



※ 중소기업 → 중견기업 신규진입 수 : 기업규모 기준(피출자·관계기업은 제외)

- 성장사다리 복원 및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어려운 대내외 시장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 마련이 절실
  - 내수시장은 과당경쟁, 시장확장의 한계 등으로 기존 업종에서의 단순한 매출 확대는 스케일업보다는 '파이 나눠 먹기'에 그칠 우려
  - 해외시장도 중국 등 신흥국의 기술력 향상, 저가전략을 통한 시장 잠식 등으로 인해 기존 사업·제품으로는 시장 점유율 유지가 어려움

◇ 유망 중소기업이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통해 성장 정체를 극복하고 스케일업(Scale-Up) 할 수 있도록 종합적·획기적 지원 필요

## II. 여건 분석

### ◇ (산업) 성장성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중소기업 진출 부진

-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성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진출해야 하나, 해당 분야에서의 중소기업 비중이 낮아 스케일업에 한계
  - 특히,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비중\*이 전체 산업 대비 제조업에서 낮고, 중소제조업 중 고위기술산업군의 비중\*\*은 20년 이상 12% 수준에서 정체

\* 全산업 65% > 제조업 44% > 컴퓨터·전자광학기기 18.7%

\*\* ('95) 9.7 → ('00) 11.6 → ('05) 12.2 → ('10) 12.1 → ('15) 12.1 → ('21) 12.4

### ◇ 성장가능성이 높은 고부가가치 중점분야로 중소기업 진출 촉진 필요

### ◇ (기업) 성장동력 확보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실행 및 확산에 한계

- 중소기업의 대다수는 신사업 등 성장동력 확보 및 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이를 준비 중인 중소기업은 일부에 불과
  - \* 중소기업의 85.4%는 신사업 진출 등 사업구조전환 필요성에 공감하나, 26.9%만 추진
-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시도는 상당한 리스크를 수반하는데,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은 실패 후 회복이 어려워 실행이 어려움

### ◇ 중소기업이 스케일업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리스크 분담 필요

### ◇ (정책) 창업기업 이후 스케일업에 대한 종합·체계적 지원 부족

- 창업기업은 단계·대상별 지원체계\*가 집중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나, 일반 중소기업 지원은 자금, R&D, 판로 등 분야별로 분절화 경향
  - \* (단계별) 예비-초기(3년 이내)-도약(3~7년) / (대상별) 글로벌-청년-재창업
- 일반 중소기업도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창업에 준하는 리스크를 감수해야 하나, 창업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 팽배
  - \* 전체 중소기업 771만개사 중 창업지원 대상인 기술기반 창업기업 비중은 2.9%(22.9만개) 전체 중소기업 예산 중 창업기업 지원 예산은 24.4%(3.3조원)

### ◇ 7년 이후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에도 창업에 준하는 체계적 지원 필요

## < [참고] 중소기업의 스케일업 애로사항 >

### 1 스케일업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전략이 없어 막연함

연장의 목소리

“생산·기술력은 보유하고 있지만 경영이나 운영 시스템, BM수립 등에 전문성과 노하우 부족”

“신사업·신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사업 확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컨설팅이 필요함

“기업 외부에 있는 전문가의 새롭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전략 수립 필요”

### 2 스케일업의 핵심은 R&D에 있는데 지원이 부족함

연장의 목소리

“신사업 성공의 핵심은 R&D에 있지만 창업기업 등에 지원이 집중되고 있음”

“아이템과 기술인력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R&D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

“기업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원천기술에 대한 전문가 지원 필요”

### 3 새로운 사업을 과감히 시도해 볼 수 있는 사업화 지원이 절실함

연장의 목소리

“BM 구상 등 사업화 자금이 필요한데, 창업기업이 아니면 지원받기 어려움”

“시제품 제작 후 양산에 들어가면 이미 많은 대출로 추가 자금조달이 어려움”

“새로운 사업의 판로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신규자금 투자는 어려움”

### 4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대규모 자금의 장기적 지원이 필요함

연장의 목소리

“규모가 큰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애로가 큼”

“좀 더 장기적이고 충분한 거치기간을 갖는 정책자금 지원 필요함”

“신사업 설비투자 후 수익 발생까지 상당 기간 소요, 장기저금리 대출 필요”

### 5 민간투자자와 해외개척은 성장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접근이 어려움

연장의 목소리

“민간 VC, PE 등으로부터 투자받기를 원하지만 만나기조차 어려움”

“사업다각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을 통하지 않고 신규 해외바이어 발굴 필요”

“모든 투자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기업은 투자받기 더욱 힘들”

### Ⅲ. 목표 및 전략

목표

민·관 협업을 통한 중소기업 스케일업 지원으로  
미래 신성장 분야의 중견(후보)기업으로 도약

방향



#### 기본방향

- ◆ 중소기업의 스케일업을 이끌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진출과 성장** 촉진
- ◆ **민간 역량**을 기반으로 **성장잠재력이 큰 유망기업** 선발
- ◆ 유망기업에 대한 **과감한 정책 집중지원** 으로 **스케일업** 달성

지원 전략

#### (1) 혁신역량과 성장의지를 갖춘 중소기업 100개 선발

- **AI+현장** AI 기반의 정량 평가 및 민간역량을 활용한 현장평가
- **심층토론** 기업별 발표·토론 방식으로 심층평가

#### (2) 성공적 스케일업 위한 전용 프로그램 신설

- **디렉팅** 디렉터 & 서포터를 매칭, 전주기 맞춤형 지원
- **바우처** 오픈형 바우처를 신설, 스케일업 도전 마중물 제공
- **네트워킹**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한 새로운 사업 기회 제공

#### (3) 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범부처 정책 패키지 지원

- **금융지원** 대규모 자금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금융 패키지 지원
- **연계지원** 핵심기술 확보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 연계

### Ⅳ. 세부 실행방안

#### 전략 1 혁신역량과 성장의지를 갖춘 중소기업 100개 선발

##### 1. 스케일업 가능성이 높은 분야 및 기업군을 전략적으로 타겟팅

- ① **[중점분야]**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이상으로 성공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와 발전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진출·성장 촉진
- \* 중점분야(예시) : 첨단제조, 에너지, 디지털·통신, AI·스마트, 바이오 등

- 전통제조·서비스기업을 산업구조, 기술 등이 급변하는 **경제환경을 반영**, 표준산업분류(KSIC)가 아닌 **유망 산업분야**로 재분류하여 중점지원

< (참고) 중점분야 진출 예시 >

분야	AS-IS	TO-BE
미래 모빌리티	산업기계 장치용 모터 제조	전기차(친환경) 전용 모터 제조 시장으로 진출
첨단제조	내마모 코팅 등에 사용하는 산업용 세라믹 파우더 제조	세라믹 코팅 기술을 활용하여 고성능 이차전지 양극재 시장진출
AI·스마트	제조 공정 불량 분석 등 영상 분석 솔루션 개발·제공	AI(딥러닝)와 고해상도 분석 기술을 통해 질병 조기진단 솔루션 개발

- ② **[선발대상]** 중견기업으로의 스케일업 의지가 높고, 혁신성, 기술성 등 성장역량·의지를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 (‘25. 100개사)

- 모든 업종의 중기업을 선발대상으로 하되, 중기업은 **중견후보기업**으로, 중견후보기업은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업
- **초격차 1000+**, **예비유니콘 육성정책** 등을 통해 성장한 기업들을 동 성장 프로그램 대상으로 적극 연계·지원 추진

< 업종별 규모기준(평균 매출액) 및 지원타겟 >

업종(예시)	중기업	중견후보	중견기업
전기장비 제조업	120억원 초과	1,000억원 이상	1,500억원 초과
고무·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0억원 초과	700억원 이상	1,000억원 초과
정보통신업	50억원 초과	550억원 이상	800억원 초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0억원 초과	400억원 이상	600억원 초과
교육 서비스업	10억원 초과	300억원 이상	400억원 초과

## 2.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객관적·전문적으로 선별

◆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스케일업 도전의지와 혁신역량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최대한 선별

◇ [평가체계] STEP 1 AI+현장평가 → STEP 2 심층토론 평가, 2단계의 절대평가 방식\*으로 100개사 이내 선정

\* 민간 투자시장의 기업선별 방식(절대, 정성, 토론)을 벤치마킹하여 선별 능력 강화

### [ 기업 평가 절차 ]

STEP	STEP 1 AI + 현장평가	STEP 2 심층토론 평가
목적	✓ 객관화된 등급 산출 ✓ 기술·사업성 검증	✓ 심층·종합 검증
내용	✓ 성장역량분석 및 미래 성장성 예측 + ✓ 새로운 변화와 혁신에 필요한 기술·사업성 평가	✓ 기업의 혁신역량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
방법	✓ AI+빅데이터 분석 ✓ 기술·투자자 정책금융기관 등 민관합동평가단의 현장실사	✓ 스케일업 전략 PT 발표 ✓ 전문가 심층토론(전원합의)

### [ 민간 투자사 추천제도 도입(안) ]

- (개요) VC, CVC, PE 등에서 투자(예정) 기업 추천 시, 가점 우대·1차 평가 통과 등  
⇒ 선정기업의 30~50% 수준으로 추천제 운영 검토
- (예시) VC 추천의 경우 시리즈B 이상기업 추천 등

1 [STEP 1 AI + 현장평가]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역량과 자원, 성장성 등을 AI 평가와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 ⇒ 객관적 선별(Initial Screening)

○ (AI 평가) 정책금융기관의 AI 기업분석 모형을 기반으로 내·외부 실시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의 잠재 역량분석·평가

- 경영성과, 기술혁신 역량 등 분석, 동일산업 내 유사 재무구조를 가진 기업군과 성장경로를 비교하여 미래성장성 예측

### < 잠재역량 분석 프로세스 >

기업신청	TOOL	목적	평가분석 지표	평가결과
기업정보 입력 재무제표 제출	K-value & Biz Path	AI 성장 잠재역량 AI 성장 경로분석	경영성과 기술성 활동성 인적효율성 산업안정성 유사그룹대조	K-value 등급 + 성장경로 예측

○ (현장실사) 민관합동평가단\*을 통해 기술사업성과 스케일업 역량 평가

\* (기술전문가) 대학교수, 연구원 등 해당 기술분야 연구자, (성장전문가) AC·VC·CVC (지원기관) 정책금융기관의 심사역(기술 석박사, 기술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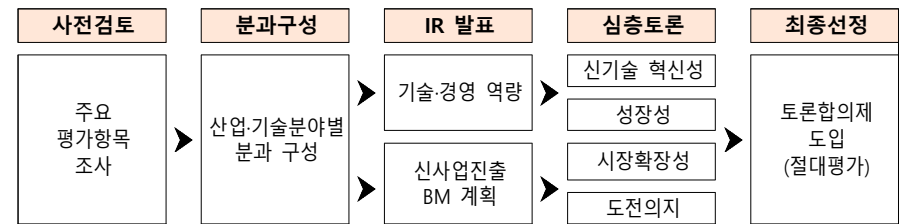
- 기술사업성 평가지표와 스케일업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신기술성, 사업성과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원·역량 등에 대해 기업 현장에서 평가

\* (기술사업성) 신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스케일업) 인프라, 고객 네트워크, 전문인력 등

○ (선정기준) 1단계 평가 결과, 기준등급 이상의 기업만 2단계 평가 진행

2 [STEP 2 심층토론 평가] 기업의 산업·기술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 후, IR 피칭과 심층 토론을 통해 최종 선정 ⇒ 종합검증(Integrated Valuation)

### < 혁신역량 평가 프로세스 >



○ (평가위원) 기업의 신기술, 성장성, 도전 의지를 검증할 수 있고, 후속 네트워킹 연계도 가능한 민간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

### < 혁신역량 평가위원 구성 >

신기술 혁신성	성장성	시장 확장성	도전외지
공공연, 대학교수 (산업·기술분야별)	VC·CVC·PE	대기업 前임원 (해외법인장 출신 등)	벤처 창업주 (저명인사)

○ (방식) 기업별 성장전략 PT 및 평가위 심층토론 後 전원합의 방식 결정

\* (전문코칭) 신청기업의 성장전략 도출 및 PT 발표 준비를 위한 전문가 코칭 지원

\*\* (심층토론) 1·2단계 평가결과와 기업의 성장전략을 바탕으로 전원합의 방식으로 선정

## 전략 2 성공적 스케일업 위한 전용 프로그램 신설

### 1. 디렉터&서포터를 통한 스케일업 소주기 맞춤형 지원

◆ 다양한 분야의 최고 민간 전문가를 통합 매칭하여 새로운 BM 전략 수립 및 신속한 이행을 통해 스케일업 연착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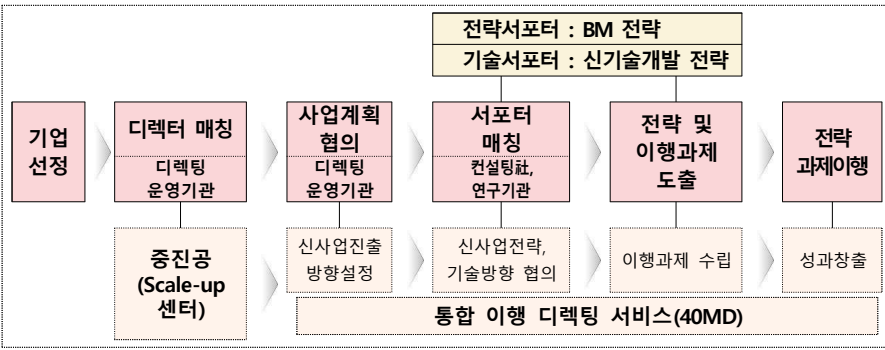
◇ [추진방향] 전담디렉터와 전략·기술 서포터가 원팀으로 운영되는 '스케일업 디렉터'를 기업별로 배정하여 스케일업 과정을 밀착관리

< 스케일업 디렉터 운영 체계 >

구분	전략서포터	전담디렉터 (Integrated Operation Director)	기술서포터
주요미션	• 스케일업 전략수립	• 스케일업 통합 이행관리	• 신기술 전략수립·자문
POOL	• 글로벌 컨설팅사 소속 컨설턴트 3인	• VC/CVC/PE 등 투자사 추천자, 대기업 퇴직 임원 등	• 공공연, 대학 소속 기술전문가 1~3인
기업매칭	• 업종, 진출분야 등을 고려하여 컨설팅사 매칭	• 업종, 진출분야 등을 고려하여 매칭	• 업종, 진출분야 등을 고려, 연구소전문가 매칭
수행업무	• 스케일업 BM전략 수립 • 세부 이행과제 선정	• 실행가능 계획으로 통합조율 • 실행관리, 혁신네트워크 지원	• 신기술개발 기획 • 기술 솔루션 지원

◇ [프로세스] 전담디렉터와 기업이 상호협의를 통해 스케일업 방향과 로드맵을 설정하고 전략·기술 서포터를 매칭하여 전략·과제 구체화

< 스케일업 디렉팅 절차 >



① [전담디렉터] 신사업·신시장 진출 경험 보유 저명 기업인, 민간 투자사 등을 활용하여 스케일업 방향 설정 및 3년간 스케일업 전략 총괄·관리

\* 전략서포터가 기업의 비전을 고려하여 신사업·신시장 진출 BM 전략 구체화

○ (디렉터 구성) VC 등 민간 투자사 추천자, 스케일업 경험을 보유한 벤처 기업인, 前 대기업 임원 등으로 구성

\* 디렉터 총괄관리 : 경영 자문 역량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를 공모·선정 후, 역량 있는 디렉터 선발절차 운영, 교육, 매칭, 수행관리 등 역할 수행

- VC·PE 등이 추천한 투자(예정)기업은 해당 투자사에게 전담디렉터 추천·선정권 부여 및 기업의 디렉터 직접 추천방식도 허용 검토

○ (기업매칭) 디렉터가 기업 선정평가 절차에 참여하여 직접 디렉팅 대상기업을 탐색·선택 → 해당기업·디렉터와 협의하여 상호 매칭

○ (수행역할) 디렉터가 보유한 경험·노하우를 토대로 장기적 비전과 방향 제시, 전략 조율, 이행관리, 리스크 관리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자문

< (참고) 전담디렉터 활동 내용 예시 >

구분	세부내용
비전제시·조율	• 기업의 장기적 비전과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조율 - 전략·기술 서포터 매칭, 전략수립 중재 등
이행계획 관리	• 수립된 전략이 실행 가능토록 통합하고 체계적 관리 - 경영자 관점에서 수립된 전략 이행 방향 도출
리스크 관리	•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 방안 제시 - 기업경영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과정의 문제해결법 제시
네트워킹 지원	• 디렉터별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비즈니스 기회 확대 - 디렉터의 풍부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활용
커뮤니케이션	• 기업과 전략·기술 서포터, 지원기관과의 원활한 소통 지원

② [전략서포터] 스케일업 진출 전략수립에 전문성을 보유한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신사업 등 비즈니스 모델 체계화·구체화 지원

○ (서포터 구성) 글로벌 컨설팅사를 주관기관으로 공모·선정하고, 전략서포터가 가능한 역량 있는 컨설턴트 POOL 구축



- (기업매칭) 기업과 협의를 통해 도출된 비전·전략, 사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분야와 역량을 보유한 최적의 컨설턴트 배정
- (수행역할) 스케일업 추진 방향(글로벌화, 신기술 사업화, M&A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전략 로드맵 및 세부 이행과제 수립 지원

< (참고) 전략서포터 활동내용 예시 >

스케일업 맞춤 전략	연차별 과제 수립	성과지표 설정
• BM기획, 해외진출, 신기술 사업화, M&A, 인증 등	• 기업 수준별 3개년 세부 이행과제 수립 지원	• 연차별 성과측정을 위한 핵심 성과지표 설정

- ③ [기술서포터] 중점분야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인 연구기관 등과 협업하여 스케일업에 필요한 R&D 기획 및 기술 솔루션 등 지원

- (서포터 구성) 출연연 등 연구기관\*을 컨소시엄 형태로 공모·선정하고, 기술서포팅이 가능한 역량 있는 연구원\*\* POOL 구축
  - \* (예시) 연구원(생기연, 고등기술연 등) + 대학(4대 과학기술원 등) 등
  - \*\* (예시) 연구원의 Career Path 및 최근 연구 실적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전문가 선정

- (기업매칭) 기업-디렉터 간 협의를 통해 도출된 기업별 세부 신기술 도입 방향\*을 고려하여 연구기관에서 적합한 연구원 배정
  - \* (예시) (대분류) 차세대 반도체 → (중분류) 패키징 분야 → (소분류) Flip Chip Bonding 기술  
↳ (기술 트렌드) 골드와이어본딩 → 솔더볼 본딩 → 이방전도성 필름 본딩

- 선정기업이 희망하는 기술서포터에 대해 우선 선정권 부여

- (수행역할) 스케일업 추진 전략 기술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 기획 및 기술난제 솔루션 제공과 기관의 자체 지원 프로그램 연계

< (참고) 전략서포터 활동내용 예시 >

신기술 개발기획	기술 솔루션	기관 프로그램 연계
✓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 사전연구 설계·테스트 ✓ 수치해석 기술지원	✓ 기술난제 분석자문 ✓ 기술동향 정보 제공 ✓ 핵심 연구원 추천	✓ 연구인력 파견사업 ✓ 시험장비 활용 지원 ✓ 산학 R&D 공동 추진

## 2. 오픈형 바우처를 통해 스케일업 도전의 마중물 제공

### ◆ 스케일업을 위한 새로운 도전에 필요한 사업화 비용 등을 오픈바우처로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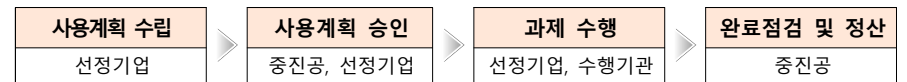
- ① [개요] 스케일업 추진에 직접 소요되는 각종 사업화 비용의 70%를 매년 2.5억원, 최대 3년간 7.5억원의 오픈바우처 발급
  - \* 지원규모 : (1년차) 2.5억원, (2년차) 2.5억원, (3년차) 2.5억원 ⇨ 3년간 총 7.5억원 지원
  - \*\* 매년 사업 진척도 등 성과평가를 통해 차년도 지원여부 결정
- ② [활용] 지원금액(바우처) 한도 내에서 지원 서비스와 서비스 수행기관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신사업·신시장 진출 등에 활용
  - \* 네거티브 통제방식을 도입하여 미지원 서비스(인건비, 식비 등) 외 자율 활용

< (참고) 오픈바우처 활용 예시 >

- ◇ 신제품 설계/시뮬레이션 서비스 (수행기관 : 대학 산학협력단, 설계전문사 등)
- ◇ 기술이전 서비스 (수행기관 : 기술보유 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기술보유 기업 등)
- ◇ 해외인증 서비스 (수행기관 : UL, CE 인증기관 등)
- ◇ 글로벌 법률·기술자문 (수행기관 : 국내외 법무법인 및 해외 대학·연구기관 등)

- ③ [절차] 선정기업이 스케일업에 필요한 오픈바우처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기관의 승인 후 수행기관 매칭 및 바우처 사용

< 오픈바우처 활용 절차 >



- ① 정부지원금 및 ② 자부담금을 재원으로 ③ 사업비 조성 → 중진공은 수혜기업(선정기업)에 ④ 바우처(가상쿠폰) 발급 → ⑤ 바우처 사용 및 ⑥ 서비스 제공 후 ⑦ 비용 정산

### 3. 다양한 네트워킹을 통한 새로운 사업 기회 제공

◆ 국내외 민간 전문가와의 다양한 네트워킹 활동을 지원하여 투자유치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

1 [투자유치 네트워크] 기업의 투자유치 실적 유무에 따라 목표를 설정하고, 수준·역량별 투자유치 네트워킹 지원

\* (진입트랙) 투자유치 실적 미보유 기업 → 시리즈B(100~300억원) 유치 목표  
(성장트랙) 기관-민간 투자유치 실적 보유 기업 → 시리즈C(500억원 내외) 유치 목표

○ (네트워크 구성) 투자자\* 및 스케일업 선배기업\*\* 등으로 POOL 구성

\* VC, CVC, PE, 증권사 등

\*\* (예시) 파마리서치(바이오), 그린리소스(반도체), 벅넥트(IT), 비바리퍼블리카(IT) 등

○ (프로그램 운영) 기업 수준별 투자유치 역량 강화 활동과 투자유치 성사를 위한 실전 IR 피칭 프로그램 운영

< 투자유치 네트워킹 프로그램 >

구분	진입트랙	성장트랙
주체	✓ 컨설팅 AC, VC, 선배기업	✓ VC, PE, 증권사, 선배기업
목표	✓ 시리즈 A-B 투자유치 * 시장진입 및 사업확장(점유율 ↑)	✓ 시리즈 B-C 투자유치 * 글로벌진출 및 시장 리더십 확보
주요활동	✓ 투자역량강화 교육 및 멘토링 (투자조건(조달방식), 방법 등) [진입트랙 중심] ✓ 국내외 IR역량강화 (효과적인 PPT, 스피치 방법 등) [공통] ✓ 투자사례 공유(선배기업) (투자이후 기업경영 노하우 등) [공통] ✓ 해외 투자 정보 제공 (자금조달시기, 조건, 방법 등) [공통] ✓ 글로벌 IR역량강화(피칭스킬) (효과적인 PPT, 스피치 방법 등) [성장트랙 중심] ✓ IPO 노하우 공유(선배기업) (IPO준비, 유의사항 등) [성장트랙 중심] ✓ 모의투자 대회 [공통]	
실전 IR 피칭	① 참여기업 모집·선정 → IR 디렉토리북 제작 ② 국내외 투자자 모집 → 기업 IR자료 제공 ③ 실전 IR 피칭 대회 개최 ④ 투자자-기업간 1:1 네트워킹 ⑤ 투자계약서 작성 및 투자 실행	

2 [해외진출 네트워크] 중점분야별 주요 해외시장을 타겟팅하여 신시장 개척에 필요한 현지 네트워크 활동 집중지원

< 중점분야별 타겟팅 국가·지역 >

미국 (LA, 시애틀 등)	중국 (베이징, 상하이 등)	유럽 (독일, 프랑스)	극동 (일본, 싱가포르)	남미 (멕시코, 칠레)
ICT, 바이오, 헬스케어, 에너지, 우주항공	전기차, IT, 의료기기, 의약, 친환경 에너지, 차세대 통신	AI, 전기차, 에너지, 우주항공, 반도체, 바이오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AI, 신소재, 로봇, 의약	전기차, 의료, 헬스케어, 차세대 통신

※ 국가별 주요수출품목 및 중진공 해외거점(GBC, KSC)별 특화품목과 연계

○ (네트워크 구성) KOTRA, 중진공 해외거점\*(GBC, KSC)과 연계하여 주요 교역거점의 현지 전문가\*\* 등을 POOL로 구성

\* (GBC) 미국, 중국, 일본 등 12개국 20개소, (KSC)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5개소

\*\* 공공기관, 컨설턴트, VC, 벤처협회, 한인 기업가, 현지 기업, 변호사 등

○ (프로그램 운영) 타겟팅 국가의 GBC·KSC와 기업을 1:1 매칭하고 사무공간 제공 및 현지화, 투자, 매칭 등 네트워킹 활동\* 지원

\* (입주트랙) 독립실 제공/연간 상주, (방문트랙) 공유오피스 제공/최소 3개월

< 글로벌 진출 네트워킹 프로그램 >

구분	주요 내용
① 현지화 멘토링	■ 비즈니스 모델 현지화, 법률, 회계, IP 이슈 대응을 위해 현지인 전문가의 1:1 밀착 멘토링 지원
② 네트워킹 파티	■ 잠재적 파트너사, 한인 창업가 등을 중심으로 네트워킹 파티*를 지원하여 현장감을 공유하고, 현지시장 이해도 향상 * 인맥구축, 정보교환, 지식공유 목적의 자유로운 네트워킹 플랫폼
③ 마케팅 워크숍	■ 해외 현지시장 진입을 위한 마케팅 전략, B2B Sales를 위한 거래성사 기법 및 경험공유,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 전문가 강의
④ IR 피칭 트레이닝	■ 현지 AC가 참여하여 국가별 투자시장에서의 PT스킬, 피칭력 작성 등 IR 피칭 스킬 강화 지원
⑤ 맞춤형 비즈 매칭	■ 협력 네트워크(기관-민간)를 동원하여 타겟팅한 해외기업과의 미팅을 주선하여 비즈니스 기회 창출 지원

### 전략 3 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범부처 정책 패키지 지원

< 스케일업 단계별 정책 패키지 지원체계 >

구분	영역	기획단계	실행단계	성장단계
금융	간접금융	특례보증 지원 (기보)		
	직접금융	정책자금 (중진공)		
R&D	탐색	기술서포터		
	개발	구조혁신 R&D		
	상용화	수출형 R&D + 스케일업팁스		
수출	자금	수출촉진·성장·이행자금 우대 (수은)		
	보증	수출신용보증 우대 (무보)		
	보험	단기수출보험 우대 (무보)		

※ (전용) ■, (우대) □

#### 1. 대규모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 패키지 지원

1 [정책자금] 용자 규모 확대 및 용자 범위·조건 개편 등을 통해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적·안정적으로 공급

1 정책자금 용자 규모를 확대\*하고 기존의 시설·운전자금 외 M&A·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자금까지 용자범위 확대

\* 사업전환자금 : ('24) 3,125억원 → ('25.안) 3,500억원

2 신사업이 본격적으로 안착된 이후 정책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거치기간 및 만기 조건 완화(5년 거치 10년 상환 → 6년 거치 12년 상환)

3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용자 제외조건\* 적용 예외

\* 신용평가등급 BB, CR1 이상, 자본 200억원 및 자산 700억원 초과

4 정책금융기관(기은·산은·신보) 등이 신속한 여신심사와 우대금리 제공 등을 통해 지속 성장지원 (금융위 협업)

\* '산업별 핵심 우수기업 지원 프로세스'에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포함 → 신속한 여신심사, 우대금리, 비금융성 지원(투자유치, 컨설팅 프로그램 등)

2 [정책보증] 스케일업 단계별 시중 은행권을 통해 필요 자금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지원 (기보)

\* 보증우대 내용 : 보증비율 최대 95%, 보증료율 0.4%p 감면

1 (기획자금) 선정기업에 기업당 최대 2억원 보증 신속지원 (산정특례)

2 (Build-Up) 스케일업 전략 이행에 필요한 사업화 및 시설자금을 기업당 최대 100억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3 (Scale-Up) Build-Up 보증을 받은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성장자금을 기업당 최대 200억원 한도 이내에서 지원

3 [민간투자]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펀드 확대

1 중기부 스케일업·중견도약 펀드의 주목적 투자 대상에 포함 (年 1천억 규모)

2 금융위 혁신성장펀드, 중견기업 전용펀드 등 스케일업을 위한 다양한 정책 펀드와 연계\*하여 민간투자 유도 (금융위 협업)

\* ① 운용사에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투자 인센티브 제공

② 운용사가 '도약(Jump-Up) 프로그램'의 기업선발평가, 네트워킹 등에 참여

4 [채권발행] 중소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여 민간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중진공, 기보)의 P-CBO 연계 지원

\* P-CBO 중점지원대상에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추가

#### 2. 핵심기술 확보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책 집중지원

1 [기술개발] 기술서포터를 통한 R&D 탐색 및 기획과 단계별 R&D 지원으로 스케일업을 위한 핵심기술의 신속한 확보 지원

< 스케일업 R&D 지원체계 >

	1 R&D 기획	2 초기 단계	3 고도화상용화 단계	
방식	기술서포터	구조혁신 R&D	수출형 R&D	스케일업팁스
내용	스케일업에 필요한 R&D 탐색 및 기획	최대 2년, 5억원 이내	최대 4년, 20억원 이내	① VC 투자금액의 1배수 매칭(20억 이내) or ② 최대 3년 12억원 이내 출연
비고	전용 프로그램	전용 사업	지원요건 완화	투자 요건에 포함

- ❶ (R&D 기획) '기술서포터'를 활용하여 스케일업 전략 이행에 필요한 R&D 탐색 및 구체화, 로드맵 수립 지원
  - ❷ (초기형 R&D) '기술서포터'를 통해 기획한 R&D를 구현하기 위해 '도약(Jump-Up) 프로그램' 전용으로 '구조혁신 R&D' 운영
  - ❸ (수출형 R&D)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신규 개척을 통해 스케일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수출지향형 R&D' 연계\* 지원  
\* 수출실적 기준 미적용 대상 내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포함 및 평가 시 우대
  - ❹ (투자형 R&D) 스케일업을 위한 후속 R&D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先민간투자-後정부지원' 방식의 '스케일업 팀스' 연계\* 지원  
\* ① 스케일업팀스 기업요건 내 '도약(Jump-up) 프로그램' 선정기업 포함 및 평가 시 우대  
② 운용사가 '도약(Jump-Up) 프로그램'의 기업선발평가, 네트워킹 등에 참여
- ② [수출금융] 해외시장 진출 시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수은·무보 등과 연계하여 용자·보험·보증 등 금융지원 확대
- ❶ (용자) 수출 물품 제작자금, 수출실적 기반 운영자금 등에 대한 용자 한도 및 금리우대\* (수은)  
\* 용자한도: (이행) 미수령계약금의 최대 90→100%, (성장) 수출실적의 최대 90→100% (촉진) 실소요자금의 최대 90→100%,  
\* 금리우대: 수출이행·성장·촉진 자금 용자 시 △1.0% 우대
  - ❷ (보험) 수입자의 계약 파기, 대금지급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수출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는 단기성 수출보험 우대지원\* (무보)  
\* 보험 가입한도 확대(책정 한도의 최대 2배), 보험료 할인(최대 20%) 등
  - ❸ (보증) 수출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보중에 대해 연대 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 우대 (무보)  
\* 보증한도 확대(책정 한도의 최대 2배) 및 보증비율 확대(90→95%), 보증료 할인(최대 20%)

## V. 추진 일정

주요 추진과제	소관부처	추진일정
① 혁신역량과 성장의지를 갖춘 중소기업 100개 선발		
(1) 평가 단계별 평가위원 pool 구축	중기부	'24.下
(2)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공고	중기부	'24.下
(3) 도약(Jump-Up) 프로그램 참여기업 선발	중기부	'25.초
② 성공적인 스케일업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 신설		
(1) 디렉터 모집 및 오리엔테이션	중기부	'24.下
(2) 전략·기술서포터 주관기관 모집·선정	중기부	'24.下
(3) 선정기업에 오픈바우처 배정 및 집행	중기부	'25.~
(4)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중기부	'25.~
③ 기업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범부처 정책 패키지 지원		
(1) 정책자금 용자공고	중기부	'25.上
(2) 우대 대출프로그램 제공	금융위	'25.~
(3) 기술보증기금 특례 보증 지원	중기부	'25.上
(4) 중견도약 스케일업 펀드운영	중기부	'25.上
(5) 정책펀드 연계 지원	금융위	'25.~
(6) 정부 R&D 사업 연계지원	중기부	'25.~
(7) 무보·수은 수출금융 연계 지원	기재부 산업부	'25.~